

# Global Goings-on

## 아시아

### ADB, 아시아 연금 제도 개선 촉구 Pension systems in Asia are unprepared and underfunded: ADB

- ▶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가 전통적인 가족 부양 의식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연금 제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킬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연금 기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새로 발표된 보고서(Pension Systems in East and Southeast Asia: Promoting Fairness and Sustainability)의 편집자이자 ADB 경제학자인 박동현씨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와 지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 간 연금 운용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 덧붙여

- 연금 제도는 보장범위, 순혜택, 은퇴 연령을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를 한 후 약속된 혜택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건실해져야 한다고

- ▶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 경제 성공의 역군은 젊은 인구였으며, 노동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확대, 광범위한 성장과 저축률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이러한 인구 배당 효과는 차츰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아시아의 평균 연령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 ADB의 새 보고서는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이 적절한 노후 소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을 본보기로 제공
  - 예를 들어, 모든 유럽 국가의 총 노인 인구 수보다 더 많은 노령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연금 제도가 도시 기업들, 지방 거주자들과 공무원들을 수급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더욱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해 연금 운용을 합리

## 영국

### 영국의 부메랑 세대

#### The Boomerang generation

- 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 중국보다 젊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연금 제도가 단지 민간 공식 부문 근로자의 14%만을 수급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연금 프로그램이 공식, 비공식 부문 둘 다 보장하기 위해 700% 이상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 이에 비해, 싱가포르의 단층 구조의 전국민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금 가입자 한 명 당 평균 기금은 향후 20년 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갈될 것이라고
- ▶ 또한, 이 보고서는 변화하는 사회 규범과 세계화가 연금 제도 개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많은 국가에서,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가족 중심의 노후 지원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화된 시장으로 이주 근로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 연금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보장 제도가 세계화가 몰고 온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 ▶ 영국 David Cameron 총리가 10월 10일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가 수없이 많은 판에 어찌서 25세 미만의 젊은 실업자들이 주택수당을 받아야 하나”고 반문했을 때 보수당 당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 부모와 함께 사는 20~34세 사이의 영국인은 3백 2십만 명으로 1997년 이래 28% 증가
  - 이러한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작년 한 해만 6% 증가해 3명의 남성 중 1명, 6명의 여성 중 1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 ▶ 이러한 현상은 실업 때문
- 2008년과 2012년 사이 18~24세 사이의 영국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13%에서 20%로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사는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의 수는 두 배가 되어 2십 1만 8천명에서 4십 2만 9천명으로 증가
- ▶ 그러나, 이상하게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 그 이유는 높은 집세와 엄격한 대출 기준

2012년 9월 26일 /

Online International News Network

<원문링크: <http://www.onlinenews.com.pk/details.php?newsid=203730&catname=Business>>

때문

-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 Southampton 대학교의 Ann Berrington씨는 연구를 통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밝혀

- ▶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경우 더 두드러짐
  -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독립을 더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 동거를 하게 되기 때문
  - 그러나, 요즘은 남성에 비해 여성 대학 졸업자는 25% 더 많은데,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을 더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와 그만큼 더 오래 지내게 되는 것
  - 1998년 이래로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2배 더 빨리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
- ▶ 영국은 18세나 19세에 독립을 하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젊은이들과 달리, 수십 년간 집을 떠나지 않는 지중해 지역 젊은이들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
  - 그러나, 부모가 오히려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탈리아와 달리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을 위해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영국의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덜 적극적이라고

2012년 10월 13일 / The Economist

〈원문 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64601>〉

## 환영 받지 못하는 통합수당제도 450,000 disable people to lose out under universal credit, study finds

- ▶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Tanni Grey Thompson씨가 설립한 한 위원회는 백만 명의 장애인들 중 거의 50% 정도가 영국 정부의 통합수당 정책으로 일주일에 58파운드를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 통합 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50개가 넘는 복지수당이 통합되어 지급되므로 자녀를 둔 10가구 중 한 가구는 집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 ▶ 위원회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 10월부터 통합 지급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게 될 영향을 조사
  - 3천 5백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작성된 위원회 보고서는 통합 수당 제도로 인해 약 4십 5만 명의 장애인이 더 적은 수당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10만 명의 장애 아동들이 받게 되는 수당이 일주일에 28파운드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돌볼 사람이 없는 2십 3만 명의 중증 장애인은 28~58파

운드, 그리고 장애인 대상 근로세액공제도 통합 수당 제도에 포함되면서 일을 하는 1십 1만 6천 명의 장애인들은 40파운드를 잃게 될 것이라고

▶ 위원회와 자선단체들은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통합 수당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 보고서는 “통합 수당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가구들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일주일에 30파운드가 줄어들게 되면 식료품, 난방비를 줄여야 하며 빚을 져야 할 것”이며 “10가구 중 한 가구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을 유지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 정부는 통합 수당이 ‘일자리 복지(make work pay)’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통합 수당이 장애인들의 근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해

- Grey Thompson씨는 “많은 장애인 가구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그리고 일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다면, 많은 이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 영국 노동당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

다며 정부가 통합 수당 제도의 도입을 1년 정도 늦추도록 촉구

- 그림자 내각의 복지부 장관인 Liam Byrne씨는 “이 보고서는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약 10만 명의 장애 아동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1인당 많게는 1천 4백 파운드까지 가로채고는 백만장자들에게는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정부의 허술한 경제 관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주장

▶ 정부는 이 보고서가 편견에 치우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

- 노동 연금부 대변인은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해

- 그는 또한 “이번 개혁을 통해서 성인과 아동들을 위한 지원 수준을 조정해 더욱 간소하고 공정한 제도가 탄생될 것”이라며 “특히, 통합 수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2012년 10월 17일 / The Guardian

〈원문 링크: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2/oct/17/disabled-people-universal-credit-study>〉